

화장사 가침박달꽃 축제

청주 화장사(주지 무진)에서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가침박달꽃 축제가 열린다. 가침보존회와 가침박달꽃축제 준비위원회가 가침박달나무의 생태적·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 마련하는 축제다.

축제는 ▲5월 2일 10시 개침꽃과 만나는 차와 음식시연 시식의 장 ▲5월 3일 11시 가침박달나무 식수행사(야생화꽃시뿌리기&나무심기) ▲5월 4일 가침꽃과 함께 하는 가족사건 촬영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한편 가침박달나무는 충청북도 천연유전자원보호림 제32호로 지정된 세계적 희귀수목이다. 현재 화장사 대웅보전 뒷산에 3만 여평에 걸쳐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전국 최대의 규모다.

손효선 기자

대구 제현사 시집 기증

한운은 스님 등 근대 한국 시인 시비를 조성한 대구 제현사(주지 우묵)가 제1회 '책 나누기 행복 더하기 축제'에 시집 '대구 동구 도동에 시비가 있다네'를 기증했다.

대구시 중구청이 주관하는 이 축제는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알뜰 도서교환 시장, 가운 써주기, 삼행시 짓기 등으로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손범천 대구지사장

중화사 초파일 범종 낙성

5월 12일 부처님 오신 날 충북 영동 중화사(주지 현규)에 가면 불자들도 직접 범종을 칠 수 있다.

중화사는 3년간의 범종 불사를 마치고 부처님 오신 날에 '범종 낙성식'을 봉행한다. 이날 낙성식에서는 중화사를 찾은 모든 사부대중에게 범종 타종의 기회가 주어진다. (043)742-2067 손효선 기자

해산 스님 사리탑 점안식

제천 고암사(주지 정명)는 5월 4일 오전 10시 상락당(常樂堂) 해산(海山) 스님의 사리탑 점안 및 사리탑비 제막법회를 봉행한다.

해산 스님은 1957년 월정사에서 탄허 대중사를 은사로 득도, 오대산 수도원에서 수행했다. 불교신문 초대 편집국장을 지냈다. (043)647-5359 김성우 기자

“부처님 가르침 따라 새 삶을”

충청지역 사찰, 봉축 맞아 교도소 수계법회 개최 잇달아

“지키겠습니다.”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충청지역 사찰들이 재소자들을 위한 수계법회와 위문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4월 23일 봉행된 대전교도소에서는 재소자 47명이 신도5계를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 것을 서원했다. 이날 수계법회의 전제사 진철 스님(만불선원 화주)은 비록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마음만은 늘 청정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진철 스님은 수계법어를 통해 “살생하지 말라 함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살라는 뜻이고 부도하지 말라 함은 일한 만큼 갖고, 가진 것을 베풀며 살라 함이다. 사음하지



대전교도소 재소자 47명이 5계를 받고 연비를 하며 불자의 삶을 서원했다.

말라 함은 이성관계로 인해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다”고 말했다.

또 “망어를 하지 말라 함은 종교

를 통해 진실함을 배워 진실하게 살라는 뜻이고 술을 마셔도 취하지 말라 함은 정체성을 갖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이라며 계

를 지키는 생활을 당부했다. 수계식은 200여명의 수용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4월 18일 공주 영평사(주지 환성)에서는 공주교도소 재소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신도장구대다라니 독경대회’를 열었다. 독경대회에서는 재소자 가운데 선발된 10명의 경합을 벌였다. 140여명의 재소자들은 독경대회를 관람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또 수덕사(주지 응선)는 5월 6일 홍성교도소에서 재소자 수계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청주청원 조계종 주지협회(회장 각의)는 어버이날인 5월 8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문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손효선 기자

“생명 사랑 실천하는 청소년으로”

대전파라미타청소년협 ‘2008 신입생 입회 선서식’ 개최

대전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진철, 이하 대전파라미타)는 ‘2008 입회선서식 및 자연·생명사랑 다짐대회’와 ‘총재 추대식 및 회장 이·취임식’을 4월 19일 대전 보문고등학교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 총재 혜홍 스님, 대전파라미타 회장 선오 스님, 백제불교회관 이사장 장곡 스님, 대전 중구 권선택 국회의원, 대전서구경찰서 이기병 총경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 선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역대 성현의 가르침의 핵심은 나만 생각하는 좁은 마음을 넘어 나만큼 남을 생각해 주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것이다”며 “나를 사랑하듯이 남도 사랑하고, 자연과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청소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총재로 추대된 진철 스님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소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커나가고



대전 파라미타 학생대표가 파라미타의 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보시 지계 인욕으로 정진하여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홍 스님은 격려사에서 “대전파라미타에서 11번째 새나이를 맞아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하는 것과 그 출발을 이 자리를 축하 한다”며 “또 한 이 자리를 통해 자연사랑 생명사

랑 다짐 선서를 하며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환경파괴의 피해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대전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는 전 총재 장곡 스님에게 감사패 수여를 하고, 신인 임원 및 분회 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손효선 기자

부처님 오신날 기념 전통문화 축제 개최

인천불교범종단聯

인천불교범종단연합회는 5월 3일 오전 10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대법회겸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조계종인천사암연합회장 지명, 천태종 황룡사 주지 무원, 화엄종 총무원장 화승, 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법륜종 총무원장 대일, 원웅종 대표 보린 스님 등 인천지역 60여 사암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모두 3부로 진행된다.

1부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인천수륙재 및 범패·작법무 공연’에 이어, 2부에는 불자 연에 인 초정 전통문화축제 한마당이 진행된다. 이어 3부에는 ‘은 세상이 하나’라는 주제로 손에 손 잡고 인천 시내를 순회하는 제등행렬이 이어진다. 김성우 기자



길이 1000미터나 되는 진일 스님의 ‘거북귀’ 작품.

진일 스님 선서화 400여점 선봬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

대한불교조동종 해광사 주지 진일 스님이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만마리의 거북이는 만부처다’를 주제로 ‘선서화 작품전시회’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14일 개최식에는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승정원장 덕룡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축하했다. 400여 점의 작품을 내놓은 이번 전시에서 진일스님은 1000미터 길이의 거북 귀(龜) 작품을 선보여 관객의 감탄을 자아냈다. 청은 경남남부지사장

천태종 조사전 낙성법회

단양 구인사서 봉행...5천여 사부대중 참석

대한불교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이 역대 천태조사들의 존상을 모신 조사전을 완공했다. 천태종은 4월 22일 단양 구인사에서 ‘천태종 역대 조사전 낙성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도용 대중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 의장 도정 스님 등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0여명이 참석했다.

지상 2층에 연면적 693㎡ 규모의 조사전에는 한국의 천태조사 1조인 파약선사와 천태사상을 크게 일으킨 대각국사 의천스님 등을 비롯해 43조사의 존상이 봉안됐다.

법요식에서 종정 도용 스님은 “자비하신 마음의 천안으로, 지난 인연 여러 고을 굽어보시네, 이미

좋은 밭에 씨앗 뿌리셨으니, 돌아오는 새싹위해 감로수가 되리라”라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역대 조사전은 한국과 중국 양 민족사이의 화합과 불교 교류를 확고히 다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며 “같은 법맥을 이어온 양국 천태종단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천태종은 1993년 중국 천태종 총본산인 국청사에 한국 천태종의 개산조인 대각국사 의천스님과 중창조 상원원각대조사의 존상을 봉안, 2003년 조사전 건립불사에 착수한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불교협회와 함께 존상을 조성해왔다. 손효선 기자

광고필름 (도피안사)